

미션과 소통을 통한 부모-자녀 갈등관계 회복

익산교육지원청 제2Wee센터
초등 5-6학년 학생·학부모 대상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운영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 제2위(Wee)센터는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 학생 20명과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가족관계 향상 체험 프로그램을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서울랜드에서 운영했다.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다. 부모-자녀 갈등 관계 회복을 위해 미션 수행을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참여형으로 미션수행과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신뢰 관계를 회복해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부모 자녀와의 관계 향상을 위해 준비한 미션의 약속, 약속 인증하기, 우리가족 이야기, 나의 성장 Story, 관계회복을 위한 같이하기, 가족의 가치 알아가기 등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김모 학생의 학부모는 "평상시 일과에 바빠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없어 많이 아쉬웠는데 이



익산교육지원청 제2위(Wee)센터는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 학생 20명과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20일에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가족관계 향상 체험 프로그램을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서울랜드에서 운영했다.

번 기회를 통해 아이와 대화도 많이 나누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계기를 자주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모 학생은 "엄마가 직장에 다녀서 평소 시시

간을 같이 많이 보내지 못해서 서운했었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농촌마을 환경정화활동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한재현) 직원 일동은 최근 순창군 동계면 거북장수마을과 장군목 일원에서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유지·발전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순창군지부 직원들은 장군목 유원지에서 거북장수마을까지의 도로와 하천 주변의 생활쓰레기 및 폐비닐 등의 수거활동을 하며 깨끗한 농촌경관을 만들기 위한 땀방울을 흘렸다.

한재현 지부장은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휴식처로서의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서남상의, 기업사랑 노사한마당 성료

지난 20일 정읍실내체육관에서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김적우)가 마련한 제3회 기업사랑 노사한마당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행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기업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

이날 김적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너무 힘든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경기침체와 경기불안, 청년실업증가 등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서민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어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럴 때 일수록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이 난관을 극복하리라 믿는다"며, "근로자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내가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알려드립니다

예수병원 개원 120주년 기념예식

개원 120주년을 맞아 예수병원이 희망찬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고자 기념예식을 엮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11월 2일(금) 오후 4시
장소: 예수병원 4층 예배실

결론

- ▲조성용(조금형 (유)금오건설 대표·양정자씨 장남)·신이영(신동수·김경애씨 장남)·양= 일시: 10월 27일 낮 12시 30분, 장소: 그랜드힐스호텔 별관 3층 세인트홀(전주)
- ▲권원배(권태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전 김제시부시장)·조중순씨 장남)·오은아(오용기·이은숙씨 장녀)·양= 일시: 10월 27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전주 The-K웨딩홀(한국고직업공제회 빌딩) 4층 오페라홀
- ▲김도현(김동주·송문향씨 장남)·배지인(배경한-임실군청 행정지원실·양미경씨 처녀)·양= 일시: 2018년 10월 28일 오후 2시, 장소: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 1층 엘리타홀



대상문화재단, 호남권 중고생 56명에게 장학증서 수여

대상그룹(前 미원그룹) 공익법인 대상문화재단(이사장 임창욱)은 지난 20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호남지역 중고등학생 56명(정읍 31명)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들 장학생들에게는 학업중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연간 12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상문화재단은 중·고등학생 장학사업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티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47년간 총 15,800여명의 학생들에게 약 17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특히 대상문화재단은 내장산 수목원 운영 등 정읍시와는 인연이 깊은 기업으로 2004년부터 정읍지역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항상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끝없는 도전정신과 드높은 패기로 더 높은 이상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청소년이 되기를 당부한다"며 장학생들에게 일일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축하·격려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자동차 동호회 클럽산타페, 불우이웃 성금 100만원 장수군에 기탁

자동차 동호회 '클럽산타페'는 지난 20일 한국농업 연수원에서 펼쳐진 모인 행사장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원과 유아 내의 500벌을 장수군에 기탁했다.

장수군은 전달받은 성금품 등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회원 350명에 달하는 클럽산타페는 지난 2017년 8월 결성돼 동호회 활동과 함께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소중한 기탁물품을 장수군에 기부해주신 클럽산타페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성금과 물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서부지방산림청, 갑질 근절 선포식 개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지난 19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갑질 근절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은 지난해 공관병에 대한 갑질을 시작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 사례가 하나 둘 밝혀짐에 따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산림청은 갑질 근절을 위한 산림청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직장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형완 서부청장은 선포식에서 다양한 갑질 유형을 소개하며 "갑질 근절을 통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예수병원 사랑의 후원금 전달 잇따라

예수병원에 사랑의 후원금이 전달됐다.

19일에는 전서노회에서 예수병원 발전기금 100만원을 후원하고 22일에는 예수병원 노동조합에서 200만원을 후원했다.

전서노회 원광영 회장은 "전북 모든 교회의 손길로 쓰임 받는 예수병원에 전서노회의 후원금이 예수병원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라, 이종영 위원장은 "병원 발전을 위해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무주경찰·화물공제조합 전북지부, 사고예방 캠페인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

는, 지난 19일 도내 화물자동차 최대 차고지로 전주 시 덕진구에 위치한 태정 물류 차고지에서 교통관리 계장 및 화물공제조합 전북지부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최근 3년 동안 10~11월 월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27.5명으로, 전체 월 평균 사망자 25.4명보다 8.3%나 높고, 특히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무주경찰은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운전 방지 캠페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전단지', '교통안전 홍보보급'이 담긴 '후반반 사지'를 제작하여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 배부했다.

특히 '후반반사지 배부'는, 야간에 화물자동차 후방에 있는 차량들이 화물차량의 식별이 어려워 추돌사고의 원인이 되며 2차사고 및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화물자동차의 식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반사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과 운수업체 종사자의 큰 호평을 받았다.

화물공제조합 관계자는, "정식적으로 플래카드만 들고 홍보하는 캠페인 보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후반반사지 부착과 같은 실질적인 사고예방 캠페인을 경찰에서 나서서 개최해준 것에 대해 고맙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캠페인이 개최되길 바란다."며 형식적인 캠페인이 아닌, 실제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종섭 서장은, "가을철 날씨가 차랑 증가로 인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특히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들의 즐겁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경찰 청문실, 모양성제 행사장서 피해자 보호 홍보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군민 체육대회, 모양성제 등 축제가 열리고 있는 행사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피해자보호지원제도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법정동행과 같은 법률적 지원,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를 위한 심리전문기관에 연계 및 임시숙소,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피해자보호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박원성 부청문관은 "다양한 전문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피해자보호 지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창군민들에게 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해 널리 알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를 펼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성재 서장은 "피해자 보호활동에 대한 관심도 제고는 주민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범죄피해자를 발굴해 안전한 고창 만들기에 더욱 더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